

The Vocation of the Elderly and Christian Educational Approaches Based on Human Development: An Understanding of the Elderly through Joyce Ann Mercer's Perspectives

Eser Kim*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characteristics and tasks of old age within a super-aged society, proposing Christian educational strategies that enable the elderly to play meaningful roles in the church community. This exploration incorporates insights from social developmental psychology and theological perspectives on vocation and interdependence in later life.

[Contents] Moving beyond a limited view of the elderly as merely wise figures or passive recipients of pastoral care, this study highlights the unique vocation and value of this life stage. Drawing on Joan Erikson's (1997) and Joyce Ann Mercer's (2017) work, Erikson provides a fresh perspective on the unique tasks and realities of old age, while Mercer expands our understanding of aging and vocation in later life. These perspectives support a vision of the church as an intergenerational community fostering growth and deeper relationships with God.

[Conclusions] As a results of the study, a broader understanding of old age contributes to enhancing the richness and purpose of life in later years. Church education should emphasize that the elderly continue to play essential roles within God's calling. Third, a deeper understanding of vocation in old age plays a key role in transforming the church into a faith community where all generations grow together and form deeper relationships with God.

[Keywords] Religious Education, Ministry, Elderly Education, Vocation, Human Development

* **Corresponding author** Eser Kim (Adjunct Professor, Department of Christian Education,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E-mail : eserkim05@gmail.com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s ©Korean Association for Religious Education

인간발달을 바탕으로 한 노인의 소명과 기독교교육적 방안: 조이스 앤 머서의 노인이해를 바탕으로

김에셀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과 교수

요 약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초고령화 시대의 도래에 따라, 노년기의 특성과 과제를 사회 발달심리학적 연구와의 대화를 통해 탐구하고 노년기의 소명과 상호의존성에 대한 발달심리학적, 신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노인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의미있는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기독교 교육적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를 단편적으로 지혜자 혹은 목회의 수혜자로 한정하지 않고 그 시기에 맞는 고유한 소명과 가치를 지닌 존재로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조앤 에릭슨(Joan Erikson, 1997) 그리고 조이스 앤 머서(Joyce Ann Mercer, 2017)의 연구를 살펴본다. 에릭슨의 연구는 노년기 발달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며 노년기 특유의 과제와 현실에 대해 폭넓은 이해를 도와준다. 머서는 노년기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제시하며 특히 소명에 대한 생각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들의 관점을 바탕으로 모든 세대가 함께 성장하고 하나님 안에서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신앙 공동체로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결론]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년기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는 노년기 소명과 삶의 풍요로움을 높이는 것에 도움이 된다. 둘째, 기독교 교육은 노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소명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 셋째, 노년기 소명에 대한 이해는 모든 세대가 함께 성장하고 하나님 안에서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신앙 공동체로 교회를 변화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주제어] 종교교육, 교육목회, 노년교육, 소명, 발달심리학

I. 문제제기

젊은 세대의 감소와 더불어 청소년부 폐지 등의 현상들에 의한 젊은 세대의 지속적인 감소와 관련한 위기상황은 이미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와 상반되게 평균 수명의 연장과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년층 진입에 따라 교회 내 고령화 현상도 뚜렷해지고 있다. 목회데이터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60세 이상 노년층 기독교인 비중은 28.9%에서 2034년 33.2%, 2044년 40.6%, 2050년에는 43.9%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Song, 2024). 특히 70세 이상의 기독교인 비중은 2024년 13.0%에서 2050년 28.9%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이는 전 연령대 중 유일한 증가세를 보이는 그룹이다. 반면, 어린이 및 청소년의 비율이 현재 14.0%임을 고려할 때, 노년층 비율이 이들과 유사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ong, 2024).

현재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다음 세대 사역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지만, 증가하는 노년 세대에 대한 교회 교육에 대한 투자는 제한적이다. 노년층을 위한 교회 프로그램은 주로 실버대학, 시니어 성경 공부 등의 형식으로 제공되며, 그 내용은 예배, 취미 특강, 야외 활동, 무료 식사 제공이 주를 이루고 있다(the Pastoral Monthly, 2024). 이에 따라 노년 교육이 일회성 행사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유바디 연구소 박상진은 이에 대해 “한국교회는 ‘목회 대상은 성인, 교육 대상은 다음세대’로 규정하는 도식을 깨트리고 전 생애를 교육의 대상으로 포함하는 평생교육을 실천해야 한다”(Kim & Jang, 2024)고 주장한다. 김성중은 젊은 세대 교육이 맞춤형으로 진행되듯이, “노년 세대 교육에 있어서도 ‘맞춤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Kim, 2024: 238).”고 언급하며, 고령화되는 교회의 실질적인 교육적 대안이 요구됨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교회 교육 또한 청소년 중심에서 벗어나 노년층의 특성과 필요에 맞춘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년기 삶의 소명을 재이해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기독교 교육을 재구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필자는 지금까지의 수동적이며 일방적 돌봄에 초점을 두는 노년 교육이 이뤄지는 이유를 성인 중심의 교회교육과 노년기에 대한 제한적 이해에서 찾는다. 현재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노년 교육은 주로 수동적이며 일방적인 돌봄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성인 중심의 교회 교육과 노년기에 대한 제한적 이해에 기인한다고 본다. 성인 중심 목회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다음세대’라는 이름으로 미래에 속한 존재로 정의하고, 이들을 성인이 되기 위한 준비 단계에 있는 집단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시각은 성인 세대가 목회의 중심이 되게 하고, 젊은 세대뿐 아니라 고령 세대 또한 목회의 전선에서 소외시키며 돌봄의 대상으로 간주하게 만든다. 또한 노인을 지혜의 상징으로 보는 전통적인 이해는 그들에게 별도의 교육이 불필요하다는 인식을 낳았고, 혹은 그들을 돌봄의 대상으로 축소하여 노년기를 연약함과 의존성의 시기로 한

정것게 했다. 이로 인해 노년 세대는 자신의 다채롭고 풍부한 삶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제혜자나 돌봄의 대상으로 축소되며, 노인 교육 또한 이들의 소명과 역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제한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필자는 노년기에 대한 심층적이며 다면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교회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노인대학에서의 취미나 기술 교육, 스마트기기 사용법 강의, 주 1회의 집단 예배와 같은 방식의 기독교 교육은 노년기에 적합한 신앙적 성찰과 삶의 의미를 탐구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소외되어왔던 노년기의 소명을 재조명하고, 이들이 그 소명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회 교육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노년기의 특성과 과제를 사회 발달심리학적 연구와의 대화를 통해 탐구하고자 한다. 특히, 조이스 앤 머서(Joyce Ann Mercer)가 제시한 노인의 몸과 시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통적이며 제한된 노년기 개념을 넘어서 노인의 소명을 새롭게 조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노년 세대의 신앙적 삶의 깊이와 풍부함을 강조하며,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독교 교육 방안을 제안할 것이다.

II. 전통적 노인 이해 및 비평

전통적으로 노인은 사회적·문화적 맥락과 발달심리학적 관점에서 지혜를 전수하고 자아 통합을 이루는 존재로 이해되어 왔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노인들의 지혜와 연륜에 감탄하며 그들을 존경의 대상으로 삼는 경향을 자주 목격할 수 있다. 노년기에 대한 초기 연구자들 중 한명인 피터 래슬렛(Peter Laslett)은 그의 저서 *A Fresh Map of Life*에서 노년기를 “제3의 나이(Third Age)”로 정의하며, 이를 학습과 성장, 사회적 기여의 시기로 봤으며 노년층이 더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Laslett, 1989). 신학적 논의에서도 노인은 종종 지혜로운 인물이나 존경받는 현자와 같은 전형적인, 때로는 과장된 고정관념에 의해 묘사된다(Mercer, 2017).

이러한 전통적인 인식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긍정적으로 보이는 고정관념 또한 노년기의 복잡하고 다양한 삶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그들의 경험을 아름답게 포장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성경에서 묘사된 노인의 이미지는 젊은 세대에 조언과 축복을 베푸는 지혜로운 인물로 나타나지만, 실제 오늘날의 노인들은 신체적 쇠퇴와 정신적 명료성의 감소, 활동성의 약화를 경험한다고 스스로 보고한다. 이는 전형적인 노인상의 이미지와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노년기 삶의 복잡성과 다면성을 드러내는 또 다른 측면을 시사한다.

1. 지혜의 상징: 문화 및 성경적 이해

전통적으로 여러 문화에서 노인은 지혜와 도덕성, 영적 통찰을 갖춘 존재로 존경을 받아왔다 (Best, 2001). 이들의 경험과 삶에 대한 통찰은 젊은 세대에게 귀중한 지침을 제공하며, 이들은 지도력과 사회적 안정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특히, 유교 사상에 기반한 동아시아 사회에서는 노인이 가족과 공동체 내에서 도덕적 지도자의 역할을 맡았으며, 한국에서도 이러한 역할은 ‘효(孝)’의 미덕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전통적인 한국 가정에서 “가부장주의”와 “조화”는 자녀와 어른(elder) 간 관계를 특징짓는 가장 강력한 가치로 간주되며(Küng, 2001), 어른은 가족을 위한 희생을 통해 조화를 유지하고, 자녀는 이에 대한 보답으로 부모에게 존경과 순종을 표현하며 강한 효도의 의무와 책임감을 느낀다(Shim, Kim, & Martin, 2008).

북미의 원주민 문화에서도 노인은 부족의 영적·문화적 수호자로 인식된다. 이들은 이야기꾼, 중재자, 교육자로서 젊은 구성원들이 부족과 자연의 관계를 이해하도록 돕고 도덕적 결정을 내릴 때 조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가족에 대한 원주민의 이해를 작성한 에이미 크라우스 크롭(Aimee Krouskop)은 “우리는 지혜, 지식, 그리고 삶의 경험으로 인해 노인을 존중한다. 이들은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이 자신의 여정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랑과 능력을 지닌 이들이다. 우리는 노인을 우리의 영적 지도자이며 지혜를 전하는 자”로 묘사한다(Pearce, n. d.).

유대 사회와 성서적 전통에서도 노인은 지혜로운 존재이자 공경해야 할 대상으로 자주 언급된다. 레위기 19장 32절은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명령하며, 노인에 대한 존경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연결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는 단순히 인간적인 예의를 넘어, 신앙적 자세로 노인을 공경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구절은 당시 사회에서 노인의 위치와 권위를 반영하며, 노인을 단지 나이가 많은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공경하는 것이 신앙적 의무임을 드러낸다. 이러한 관점은 공동체 내에서 노인의 존재가 연령에 국한되지 않고, 그들의 삶의 연륜과 경험이 공동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성경은 노인 존경을 단지 전통적 관습이 아닌 신앙적인 태도로 보았다.

성서는 또한 노인을 지혜의 상징으로 묘사한다. 욥기 12장 12절에서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고 하며, 장수한 이들의 경험이 곧 지혜로 연결됨을 강조한다. 이는 단순히 연령에 따른 지혜가 아닌, 삶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얻어진 통찰로서의 지혜를 의미한다. 잠언 16장 31절은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는 표현을 통해, 오랜 세월을 공의롭게 살아온 자들의 백발이 영광의 상징임을 암시한다. 이러한 구절들은 노인을 단순히 나이 든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우러난 지혜와 통찰이 공동체와 신앙생활에 중요한 자산임을 나타낸다. 잠언 20장 29절도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라고 하며,

노년의 경험을 통해 나타나는 내면의 성숙을 긍정적으로 묘사한다. 이처럼 성서는 노인을 경험에서 형성된 지혜와 통찰을 지닌 존재로 바라보며, 이들이 공동체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성서에서 노인이 항상 긍정적으로 그려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지혜는 노인의 전유물이 아니다. 제인 패터슨(Jane Patterson)은 ‘장로’ 혹은 ‘연장자’가 항상 나이와 연관되는 것은 아님을 지적한다(Mercer, 2017). 예를 들어, 전도서 4장 13절에서는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한 왕보다 나으니”라고 하여, 나이 든 자가 지혜를 잃거나 경직된 태도를 보일 때 젊은이보다 못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이 구절은 연령이 지혜의 절대적 척도가 아님을 강조하며, 나이가 많더라도 지혜를 잃고 고집스러운 사고를 가진 노인은 오히려 공동체에 해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는 노인이 지혜로워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독자에게 환기시키면서도, 그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는 성경의 복합적인 시각을 드러낸다.

2. 자아통합의 시기: 발달심리학적 노인이해

에릭 에릭슨(Erik 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은 인간이 일생 동안 겪는 8단계의 심리사회적 갈등을 다루며, 각 단계에서 성공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경우 개인은 중요한 덕목을 습득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노년기(65세 이후)는 이 이론에서 통합성(Integrity) 대 절망(Despair)의 갈등을 중심으로 하는 8단계에 해당한다(Crain, 2010). 에릭슨에 의하면, 이 시기에 자신이 살아온 삶을 돌아보며 성취와 만족을 느낄 수 있는가가 중요한 과제가 된다(Crain, 2010). 만약 개인이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통합성을 이루고 지혜라는 덕목을 습득하게 되며, 이는 삶의 다양한 경험과 실패를 받아들이는 성숙한 태도를 의미한다(Crain, 2010). 반면, 삶에 대한 만족감이 부족하거나 후회를 많이 느낄 경우, 절망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더불어 남은 시간을 변화시키기엔 너무 늦었다는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Crain, 2010). 에릭슨은 노년기에 통합성을 이루는 것이 삶을 완성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보았다(Erikson & Erikson, 1997).

에릭슨의 아내 조앤 에릭슨(Joan Erikson)은 이후 9단계를 추가로 제안하며, 이를 주로 80세 이상의 고령기를 다루는 단계로 정의하였다(Erikson & Erikson, 1997). 조앤 에릭슨에 의하면, 이 시기에는 노인들이 이전의 발달 단계에서 다시 한번 갈등을 경험하게 되며, 특히 육체적 쇠퇴와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통합성을 유지하는 과정이 더욱 어려워진다고 설명한다(1997). 그녀는 노년 후기의 특성상 절망감이 더 강해질 수 있는 시기이며, 이때 자신의 한계와 쇠퇴를 받아들이면서도 통찰과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였다(Erikson & Erikson 1997: 105-106). 에릭슨은 노년기의 통합성 대 절망 단계에서 지혜라는 덕목을 중심으로 설명했으나, 그의 아내 조앤 에릭슨은 80대와 90대에 이르면 과거를 다시 돌아보며 절망에 빠질 여

유조차 없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 시기에는 육체적 능력의 상실과 쇠퇴가 거의 모든 주의를 요구하게 되며, 하루하루를 그저 무사히 넘기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기 때문이다(Erikson & Erikson, 1997: 113). 실제로 노년기에는 신체가 일상의 현실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긍정적 요소보다는 제한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 아동기에는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발달이 급격히 이루어지고 청소년기는 자아정체성을 형성하고 독립성을 추구하는 중요한 시기로, 신체적 성장과 더불어 사고 능력의 발달하는 방식으로 신체가 한 개인의 삶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전의 단계가 발달의 모습을 더 많이 띠는 반면 노년기에는 쇠퇴와 죽음에 더 가까워지는 경향을 보인다. 물론 노년기의 모든 신체적 경험이 쇠퇴로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특성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한편, 신앙발달이론을 제안한 제임스 W. 파울러(James W. Fowler)는 노년기를 신앙의 이상적 단계로 보았다. 파울러는 주로 중년기와 노년기에 해당하는 제5단계에서 사람들이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 신앙의 복잡성을 수용하는 성숙한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고 주장한다(Fowler, 2002: 320-325). 그는 노년기에 접어든 사람들이 삶의 모순과 신비를 받아들이고, 종교적 믿음과 실제 삶을 통합하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고 설명한다(Fowler, 2002). 더 나아가 파울러는 궁극적 단계로 매우 소수의 사람들만이 도달하는 제6단계, 즉 보편적 신앙 단계에서 일부 노년층이 보편적 진리와 정의를 추구하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고 본다(Fowler, 2002). 이 단계에 이른 노인들은 타인의 고통과 인류 전체의 복지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며, 삶의 통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Fowler, 2002).

발달심리학에서 노년기에 경험하는 자아통합은 노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되며, 이는 김성중의 연구에서 언급된 것처럼 이상적 노년기를 위한 목표 지향점이 될 수 있다(Kim, 2024). 이처럼 이상적 담론은 노년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적 관점은 노년층의 다양한 개인적 경험과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위험이 있으며, 노인의 삶이 지니는 복잡성과 다양성을 간과할 우려가 있다.

3. 전통적 노인 이해의 한계

노인들이 삶을 통해 쌓아온 다양한 경험과 중요한 지혜는 개인의 자산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기여할 수 있는 귀중한 자원이다. 노년기를 삶을 통합하고 지혜를 나누는 시기로 보는 관점은, 노인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노인들이 신체적·정신적 쇠퇴를 경험하면서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며, 모든 노인에게 지혜롭고 자립적인 모습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에서 노인의 다양한 상태를 간과한 과도한 이상화일 수 있다. 필자는 노년기의 긍정적 측면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닌 단편성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다.

‘지는 노을’과 같이 아름답고 현명하며 삶을 통합하는 노년기의 신화적 이미지는 독립성과 주체성에 대한 과대평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독립성과 주체성은 노년기의 중요한 목표일 수 있으며, 노인들이 신체적·정신적 쇠퇴 속에서도 자율적으로 자신의 삶을 주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노년층이 자존감을 유지하며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특히, 독립성은 단순히 신체적 자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정서적 자율성을 포함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가치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독립성과 주체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노년기에 필요한 상호의존적 관계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오히려 노인들에게 과도한 책임감을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노인을 지혜로운 존재로만 묘사하는 것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약해질 수 있는 현실을 무시할 위험이 있다. 많은 노인들이 나이가 들면서 다양한 건강 문제에 직면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혜롭고 자립적인 노인의 고정관념이 이러한 필요를 간과하게 만들면, 노인들이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그들의 어려움이 충분히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

노년기 삶의 양상은 모든 노인에게 동일하지 않다. 어떤 노인들은 지혜를 쌓고 가족과 공동체에서 존경받는 위치를 유지할 수 있지만, 다른 이들은 외로움,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등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노년기를 겪을 수 있다. 따라서 노년기를 지나치게 긍정적으로만 묘사하는 고정관념은 다양한 노년기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며,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의 삶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다음 장에서는 노인의 소명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III. 노인의 소명

소명을 생산성과 직업으로만 이해한다면, 노인에게는 더 이상 소명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기독교적 관점에서 소명은 일생에 걸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모든 삶의 계절에 걸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부르심(calling)이다. 그렇다면 노년기의 소명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조이스 앤 머서(Joyce Ann Mercer)는 노년기의 소명이 단순히 지나온 삶을 회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쇠퇴와 죽음의 현실을 받아들이며 사랑과 봉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중적 부르심을 통합하는 데 있다고 강조한다(Mercer, 2017).

노년기의 소명을 제대로 논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소명을 지나치게 일과 직업과 동일시하는 데 있다. 성경적 관점에서 소명은 직업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지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과정으로서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직업이 자아 정체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소명과 직업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노년기를 소명의 범위 밖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게 만들며, 나이가 들어 생산적이지 않거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봉사의 방식으로 기여하지 않는 이들을 소명을 완수한 존재로 여기는 원인이 된다. 머서는 노년기의 소명을 어린이와 청소년의 소명을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래의 기여자’로 간주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주장한다(Mercer, 2017: 178). 이와 같은 관점은 노인의 소명을 그들이 이전에 수행했던 역할과 성취에 한정시켜, 현재 그들이 노년기에서 경험하는 소명을 간과하게 만든다.

하지만 소명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반한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변화되어 삶 전체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의미한다면(Lev 19:2; 1Pet 1:15-16), 노년기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소명에서(Matt 28:19-20; Mic 6:8) 제외되지 않는다. 머서는 중년기와 성년기 후반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회적 요소들이 사라진 노년기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과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깊이 탐구하게 되며, 이 탐구가 타인에게 능력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방식이 된다고 주장한다(Mercer, 2017).

이러한 맥락에서 노년기, 특히 ‘노쇠한 노인’의 상황은 소명이 단순히 생산성에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오히려 노년기의 소명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선물이며, 다양한 방식으로 타인과 공동체에 기여하도록 부름받는 것이다.

1. 의존성

노년기에 이르러 몸의 역할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몸을 통해 부르셨다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준다. 비록 노화된 몸이 하나님의 소명에 참여하는 데 장애물처럼 보일 수 있지만, 몸은 여전히 하나님의 부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우리의 응답 또한 몸을 통해 이루어진다. 특히, 노년기에서 신체에 대한 인식이 더욱 강해지면서 자립과 독립을 과도하게 가치 있게 여기는 문화에 대한 비판이 가능해진다. 즉, 신체가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 독립적 상태에만 집중하는 사고방식을 성찰하고 비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전통적으로 서구에서는 행위주체성(agency)을 이성, 독립성, 자율성 같은 가치들을 통해 정의해왔다(Esser et al., 2016). 이러한 특성들은 주로 성인 남성을 모델로 하여 이해되었고, 어린이와 노인에게는 그 특성이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주체성을 무시하는 것이 정당화되곤 했다. 신학적 인류학도 예외가 아니고 이상적인 개인을 종종 자율성과 독립성, 이성을 갖춘 주체로 묘사한다. 윤리학자 스탠리 하우어와스(Stanley Hauerwas)는 “내가 주체로서 갖는 힘은 내 서술 능력의 힘과 비례한다”고 말하며, 주체가 된다는 것은 이성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개인이 되는 것이라고 보았다(Hauerwas, 1991). 그러나 노년기는 이러한 독립성과 자율성의 신화에 도전장을 던지며, 상호 의존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한다.

머서는 요양원에 누워 지내는 한 노인의 예를 통해 이러한 주제를 설명한다. 이 노인은 신체

적으로 거의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있지만, 간호조무사와 집안일을 돕는 이들에게 좋은 청중이 되는 것을 통해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았다(Mercer, 2017: 175-176). 이 예화는 의존과 독립이라는 이분법을 무너뜨리며, 신체적 능력의 차이가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노인은 신체적으로는 전적으로 타인에게 의존하고 있으나, 대화를 통해 타인에게 정서적 반응을 제공하며,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노년기에서 하나님의 부름은 신체적으로 약해진 이들조차도 이웃을 섬기는 삶으로 초대하며, 돌봄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서로의 존재를 통해 은혜가 나누어진다. 이는 단순히 일방적인 돌봄의 관계를 넘어서, 상호적으로 섬기고 섬김을 받는 관계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다. 연약한 노년기의 소명은 타인에게 돌봄을 받는 부름을 포함한다(Mercer, 2017: 195). 머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의도적 행동이나 능동적인 응답을 요구하시지만, 노년기에는 수용적이고 의존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Mercer, 2017: 195).

수용적 의존은 자립과 자율성, 개인주의를 중시하는 문화적 규범 속에서 성장해온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돌봄을 받는 부름은 타인의 돌봄 능력을 기르도록 돕는 동시에, 신앙 공동체 내에 우리가 자급자족이 아닌 관계적 상호의존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요르그 리거(Joerg Rieger)와 콕플란(Kwok Pui-Lan)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예를 들어 특정 언어를 배우고 자신을 표현하여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하는 능력조차도 다른 이들에게 빚진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인간의 삶이 관계로 구성되어 있음을 강조한다(Rieger & Kwok, 2012: 64). 이는 한국의 전통 상형문자인 ‘사람 인(人)’에서도 드러나며, 서로 기대고 있는 두 선으로 이루어진 ‘인(人)’은 인간이 서로를 필요로 하며 상호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상징한다.

돌봄을 받는 것은 상호의존성을 상기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노인들 스스로 하나님의 돌봄과 임재를 경험하라는 부름이기도 하다. 헨리 J. M. 나우웬(Henri J. M. Nouwen)은 돌봄을 받는 경험이 단순한 수동적 의존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를 깊이 체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Nouwen, 2010). 개인 뿐 아니라 신앙 공동체 또한 돌봄을 하나님의 돌봄으로 생각해야 한다. 목회 상담가 베스 게이드(Beth Gaede)는 신앙 공동체가 “때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다. 그들의 돌봄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다”라고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Gaede, 2010: 38).

상호성이 강조되는 머서의 시각은 돌봄을 제공받는 과정에서의 무력감이나 의존성의 현실적 경험을 간과할 위험이 있다. 또한 돌봄 제공자가 상호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경우, 돌봄의 과정이 의무감으로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머서의 관점은 기존의 기독교 교육에서 노년기를 단순히 돌봄의 대상으로만 보는 평면적 접근을 넘어, 노년기의 몸이 소명을 담고 있음을 이해하도록 한다. 돌봄의 개념은 단순히 수혜자로서의 노인을 넘어, 노인 소명의 핵심을 이루는 다층적이고 의미 있는 역할을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이다.

2. 느려진 속도

머서는 노년기에 변화하는 것은 몸뿐만이 아니라 시간에 대한 인식 역시 달라진다고 주장한다(2017: 185). 상실 치료(grief therapy)에서 주장하듯이 죽음을 직면하는 과정은 삶의 재조명을 가능하게 하고 삶을 더 충실하게 살도록 도울 수 있다(Worden, 2018). 죽음에 다가가는 시간인 노년기 또한 시간이 무한한 자원이 아니며 남은 시간이 과거의 시간보다 적다는 현실이 뚜렷해진다. 머서는 시간이 재구성되는 이러한 경험이 소명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낸다고 주장한다(Mercer, 2017).

머서는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시간의 재구성의 예로 든다. 그녀는 언어적 소통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그 사람과 함께 앉아 있거나 느린 걸음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Mercer, 2017: 188). 그녀는 이러한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유일한 일은 “(적절한 표현인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 서로의 존재 속에서 공유되는 시간”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시간이 명상적일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으며, 느린 시간을 노인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형성적인 경험을 제공한다고 언급한다(Mercer, 2017: 188).

실천신학자 존 스윈튼(John Swinton)의 치매에 관한 연구를 인용하며 머서는 자신의 주장을 이어간다. 스윈튼은 이러한 ‘서로 존재함’의 형성적인 경험을 더욱 깊이 탐구한다. 스윈튼은 치매 환자와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느린 시간을 통해, 개인의 가치와 존재의 의미가 단순한 생산성이나 인지 능력에 있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치매를 앓는 이들과의 시간은 우리가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도록 안내한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존재해 줄 필요가 있다. 서로에게 존재하려면, 우리는 기억하는 법을 배우고, 시간을 더 충실하고 다르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 우리는 치매를 앓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목회의 방식이라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Swinton, 2012: 229-230).

노년기의 느림은 간병인, 젊은 사람들, 그리고 목회자들에게 ‘시간의 선물’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노인들은 함께하는 이들을 자신의 느린 속도로 초대하며, 그들에게 일상 속에서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 속도를 늦춘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더디게 흐른다는 의미가 아니다. 속도를 줄이고 순간을 온전히 경험함으로써 내적, 관계적, 영적 깊이를 발견할 수 있다. 노인들은 바쁜 현대 사회에서 쉽게 간과되는 ‘느림의 미학’을 전해주며, 시간의 진정한 가치와 풍요로움을 발견하게 하는 선물을 제공한다.

3. 상실

노년기는 다양한 상실을 경험하는 시기로, 이는 신체적, 관계적, 역할, 경제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 차원에서 나타난다. 신체적 상실은 만성질환, 체력의 감소, 시력 및 청력 저하와 같은 기능적 제한을 포함하며, 이는 개인의 자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배우자나 친구의 죽음, 자녀의 독립, 사회적 고립과 같은 관계적 상실은 심리적 고통을 초래하며, 은퇴로 인한 사회적 역할의 상실은 개인의 정체성의 상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

노년기의 상실도 소명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을까? 머서는 노년기의 상실은 공동체가 노인들이 상실을 함께 감내할 수 있는 관계적 지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노인을 초대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Mercer, 2017: 191). 또한 상실을 겪고 있는 노인들은 공동체에 상실에 굴복하지 않고 극복하는 법을 가르쳐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노인들에게 상실을 허락하신다거나 이를 통해 공동체가 돌볼 기회를 주신다는 해석은 신학적으로 부적절하다. 이러한 관점은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여, 하나님을 가혹적이고 의도적으로 고통을 초래하는 존재로 이해하게 만들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노년기의 상실은 타락한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인간 경험의 일부로 이해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드러날 수 있다는 관점이 바람직하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로서 죽음에 다가가며 신체적·정신적 쇠퇴와 상실의 고통을 겪고, 이 유한성을 통해 하나님의 부름을 성찰하는 것이 신학적 작업이라 할 수 있다(Mercer, 2017: 191).

노년기의 상실은 점차 궁극적 상실인 죽음으로 이어진다. 삶의 다른 단계들처럼 한 단계의 끝에 새로운 단계로 가는 것과는 달리, 노년기는 궁극적 끝인 죽음을 기다리는 시기다. 존재의 궁극적 상실에도 소명적 요소가 있을까? 머서는 실천신학자 K. 브리놀프 라이언(K. Brynolf Lyon)의 말을 빌려 죽음의 소명적 요소를 설명한다. 라이언은 “기독교인들에게 노년의 경험은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맥락화된다”고 설명하며,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지만, 우리의 죽음이 우리에게 대한 마지막 의미는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궁극적 무의미에서 구속하시며, 우리의 현재 경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몸이 부활할 것이라는 희망을 통해 양육된다”고 말한다(Lyon, 2004: 284). 소명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마지막 부르심은 우리를 이생의 책임과 고통에서 벗어나 부활의 신성한 생명 안에서 충만함으로 초대하는 것이다. 죽음이라는 궁극적 상실을 두려움과 절망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구속적 행위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이처럼 노년기의 소명은 역설적이다. 머서가 인용하는 또 상담학자 캐슬린 피셔(Kathleen Fischer)는 이러한 노년기의 역설적 소명을 아름답게 표현하며, 노년기 소명에 내포된 ‘약함 속에서의 강함’과 ‘상실 속에서의 충만함’을 강조한다. 피셔는 노년기 소명이 결국 우리의 한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삶의 깊은 충만함을 찾아가는 길임을 시사한다.

사랑, 용기, 신앙, 충성과 같은 복음의 측면들은 오직 노인들만이 인류 공동체를 위해 성례화할 수 있는 것들이다.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인생의 후반기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 역설을 가장 강렬하고 생생하게 드러내는 시기다. 즉, 우리가 생명을 잃는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그것을 찾는다는 것, 상실이 곧 얻음이 될 수 있으며, 약함이 곧 강함이 될 수 있다는 것, 죽음이 곧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는 역설이다(Fischer, 1998: 19).

노년기의 상실과 죽음은 인간의 유한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소명을 성찰할 수 있는 신학적 기회를 제공한다.

상실을 소명으로만 해석할 경우, 고통의 현실적 측면을 지나치게 신학적으로 환원하는 한계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노년기가 단순히 쇠퇴와 종말의 시기가 아니라, 인간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과 부활의 희망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깊은 신앙적 여정의 시기라는 희망이 제시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노인들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 안에서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을 깨닫고, 공동체에 믿음과 소망의 본보기가 된다. 노년기의 소명은 단지 이생의 끝자락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생명의 충만함과 부활의 약속을 바라보는 성숙한 신앙의 증언으로 완성된다.

IV. 노인 기독교 교육 방향 제시

초고령화 시대의 도래는 교회와 기독교 교육에 중요한 도전이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기독교 교육학자 김성중은 노인들의 전인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독교 노인 교육 프로그램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다(Kim, 2024: 247-248). 선교학자 박보경은 노인들의 사회적 기여 욕구를 반영하여,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선교적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로운 노년의 방향성을 제시한다(Park, 2019). 또한, 기독교 교육학자 박은혜는 노인의 건강한 삶을 위해 종교적 성숙이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하나님 이미지의 치유 교육을 제안한다(Park, 2021). 이와 같이 최근 교회 내에서 노인 교육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다양한 움직임이 제안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노력들과 더불어 교회 공동체가 하나의 유기체로서 보다 상호의존적이고, 특정 세대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전 세대를 아우르는 기독교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오늘날의 교회가 노인의 역할과 가치를 재발견하고, 그들을 교회의 중심적인 목회 파트너로 존중하며, 모든 세대 간의 상호 의존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제안한다.

첫째, 소명이 젊은 세대만의 전유물이 아니며 노년기에도 그 계절에 맞는 소명이 있음을 인식하는 교육이 확산되어야 한다. 노인의 소명에 대한 인식은 노인을 단순히 목회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을 넘어, 목회 파트너로 여기는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의 성인 중심의 목회는 노인을 목회의 수동적 수혜자로 한정할 위험이 있으며 종종 그들을 오랜 신앙의 여정과 삶의 경험을 지닌 지혜의 전달자로만 바라보는 시각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제한적 시각을 넘어서, 노년기의 소명 의식을 일깨우는 교육이 필요하다. 교회는 또한 노인들이 더 이상 생산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사회적 인식에 맞서, 그들이 현재의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역할과 능력을 존중하며 목회의 동반자로 세울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돌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받는 상호적인 행위임을 교회 전체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 돌봄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돌봄을 받는 것 또한 소명의 일환이 될 수 있음을 교육함으로써, 기독교 교육은 서로 돌보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역할을 강조해야 한다. 특히 노인들이 단순히 돌봄의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하며, 그들 역시 타인을 돌보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인식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모든 세대가 서로에게 의지하고 돌보는 상호 의존적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로 배우고, 가르치며, 함께 성장하는 신앙 공동체를 지향하여, 노인들의 약함이 공동체의 돌봄 문화를 촉진하고 세대 간 의존성과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노인의 연약함은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통로가 되며, 돌봄의 상호성은 세대 간 경계를 허물고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신앙적 행위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이는 교회의 기존 돌봄 사역을 일방적 ‘베룩’의 개념에서 벗어나 상호 돌봄의 관점에서 재해석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셋째, 노인들의 상실, 약해짐(vulnerability), 그리고 죽음에 대한 신학적 성찰과 신학 교육이 필요하다. 박은혜는 “노인의 종교적 성숙을 위한 교회교육 방안 연구”에서 노인이 사회적 관계가 줄어드는 시기에 하나님과의 더욱 깊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스스로를 신앙 성숙을 이루어야 할 존재로 인식하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한다(Park, 2021). 여기에서 더 나아가, 필자는 기독교 교육이 인간 생애주기의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신학적 기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상실과 죽음의 개념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성찰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노인과 모든 세대가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상실과 약해짐이 두드러지는 시기에 하나님의 취약성(vulnerability)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위르겐 몰트만(Jürgen Moltmann)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하나님의 취약성의 가장 강력한 표현 중 하나로 본다(Moltmann, Wilson & Bowden trans., 1974).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성육신 사건은 그분이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연약함과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이셨음을 의미하며,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은 인간의 고통, 상처, 죽음을 경험하신 하나님을 드러낸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과 고통 속에 함께하시며, 그 속에서 구원과 회복을 이루신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런 신학적 관점은 하나님의 사랑이 초월성을 넘어 인간과의 깊은 연대를 강조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노년기에는 하나님을 전능한 존재로서가 아니라, 인간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들어와 고난에

동참하시는 분으로 이해할 때, 노인들은 상실과 연약함 속에서도 그들과 함께 연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이해는 노년기 자신의 상실과 약해짐 속에서도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데 중요한 신학적 기반이 될 수 있다.

V. 나가는 말

나이 듦을 축복으로 보는 신학적 관점과 상실로 보는 관점 사이의 이원론은 여러 방식으로 나타난다.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일해 온 사람들에게 은퇴시기를 “보상”으로 인정하지만, 노년층을 다른 연령대와 분리하는 수단으로 노년 공동체를 만드는 경향도 있다. 교회들 역시 젊은 가정이 있는 성인들을 끌어들이는 것만이 성장하고 번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우리는 우리 교회와 공동체의 장로들에게 그들의 지혜와 신앙에 대해 감사를 표하면서도, 종종 그들을 발전과 변화의 장애물로 보기도 한다.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본 연구는 노년기의 삶과 소명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제시하며 노인을 공동체와의 관계 안에서 이해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노년기의 신체적 쇠퇴와 상실, 의존이 증가하는 시기이지만, 다른 연령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계속됨을 이야기하였다. 특히, 노년기 소명은 독립성보다는 상호 의존성을 기반으로 하며, 이는 기독교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야 할 중요한 가치이다.

노년기에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상실을 겪는 일이 많아지지만, 이러한 상실이 노인들의 역할을 축소시키거나 그들의 가치를 약화시키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기독교 교육은 노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소명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그들의 경험과 지혜가 교회 공동체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음을 재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이 가치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노인의 소명 교육과 이와 관련한 전세대 교육 커리큘럼들에 대한 연구들이 더 필요할 것이다.

초고령화 시대의 기독교 교육은 노인들의 소명의식을 회복하고, 그들이 교회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세대 간의 유대와 상호 의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기독교 교육적 접근은 노년기와 그 이후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성장하고 하나님 안에서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신앙 공동체로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Abbreviations]

Lev : Leviticus

Mic : Micah

Matt : Matthew

1Pet : 1Peter

[Primary Sources]

대한성서공회 (2005).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Translated in English) Korean Bible Society (1962). *The Holy Bible, Korean Revised Version(KRV)*. Seoul: Korean Bible Society.

[Secondary Sources]

Best, R. J. (2001). The Spiritual Role of the Elder in the Twenty-First Century. Moberg, D. (ed.). *Aging and Spirituality: Spiritual Dimensions of Aging Theory,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Binghamton, NY: The Haworth Pastoral Press.

Christian Today (2024. 9. 11.). The Christian population in South Korea, currently at 16.2%, is projected to decrease to 11.9% by 2050. Retrieved 2024. 10. 13. from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63735>.

Crain, W. (2010). *Theories of development: Concepts and Application* (6th ed.). New York, NY: Routledge.

Erikson, E. H. & Erikson J. M. (1997). *The Life Cycle Completed*. (extended ed.). New York, NY: Norton.

Esser, F., Baader, M. S., Betz, T., & Hungerland, B. (2016). *Reconceptualising Agency and Childhood: New Perspectives in Childhood Studies*. Abingdon, Oxon; New York, NY: Routledge.

Fischer, K. (1998). *Winter Grace: Spirituality for the Later Years*. New York: Paulist.

Fowler, J. W. *Stages of Faith*. 사미자 옮김 (2002). 신앙의 발달단계.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Gaede, B. A. (2010). What Will I Do Next? Discerning God's Callings for Retirement.

- Journal of Religion, Spirituality & Aging*, 22(1-2), 27-40.
- Hauerwas, S. (1991). *The Peaceable Kingdom: A Primer in Christian Ethics*. Notre Dame, IN: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 Kim, S. J. (2024). A Study on a Christian Senior Education Program Based on the Holistic Needs of the Elderly. *Korea Presbyterian Journal of Theology* 56(2), 237-267.
- Küng, H. & Ching, J. (1989). *Christianity and Chinese Religion*. New York: Doubleday.
- Laslett, P. (1991). *A Fresh Map of Life: The Emergence of the Third Age* (2nd ed).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Lyon, K. B. (2004). Faith Development in Late Adulthood. Kelcourse, F. B. (ed.). *Human Development and Faith: Life-Cycle Stages of Body, Mind, and Soul*. St. Louis, MO: Chalice.
- Mercer, J. A. (2017). Older Adulthood. Cahalan, K. A. & Miller-McLemore B. J. (eds.). *Calling All Years Good Grand Rapids*. Grand Rapids, MI: Eerdmans.
- Moltmann, J. (1974). *The Crucified God: The Cross as the Foundation and Criticism of Christian Theology*. Wilson, R. A. & Bowden, J. (trans.) New York, NY: Harper & Row.
- Nouwen, H. J. M. (2010). *The Wounded Healer: Ministry in Contemporary Society*. Garden City, NY: Doubleday.
- Park, B. (2019). New Seniors Generation As Missional Christians. *Theology of Mission*, 53, 111-141.
- Park, E. (2021). A Study on the Method of Church Education for the Elderly's Religious Maturity.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67, 77-116.
- Pearce, E. B. (n.d.). 14.5 Indigenous Perspectives on Family, Purpose, and Meaning. *Pressbooks*. Retrieved 2024. 10. 13. from <https://openoregon.pressbooks.pub/familiesprelaunch/chapter/14-5/>.
- Rieger, J. & Kwok, P. L. (2012). *Occupy Religion: Theology of Multitude*. Lanham, MD: Rowman and Littlefield.
- Shim, Y. J., Kim, M. S., & Martin, J. N. (2008) *Changing Korea: Understanding Culture and Communication*. New York, NY: Peter Lang.
- Swinton, J. (2012). *Dementia: Living in the Memories of God*. Grand Rapids, MI: Eerdmans.
- Weekly Christianity (2024. 2. 27.). (Translated in English) Ubadi Institute for Educational Ministry, 2024 Seminar for Senior Ministry. Retrieved 2024. 10. 21. from <https://www.cnews.or.kr/news/articleView.html?idxno=2729>.
- Worden, J. W. (2018). *Grief Counseling and Grief Therapy: A Handbook for the Mental Health*

Practitioner (5th ed.). New York, NY: Springer Publishing Company.

월간목회 (2024. 7.). 한국교회 희망보고서 07: 시니어 세대 특집. (Translated in English) The Pastoral Monthly (2024. 7.). Korean Church Hope Report 07: Special Edition on the Senior Generation, 575, 30-59.